

지방자치

“영암군 폐플라스틱 1418t 불법 소각”

여수시 하수슬러지 미신고 가동하다 적발
감사원, 관리·감독 허술 전남도 주의 조치

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폐플라스틱
제품의 경우 '자원의 절약과 재활용
촉진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슬러지 소
각시설이 아닌, '폐기물 고형연료제품
사용시설'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.

할 수 있는 설비도 없어 슬러지 소각
량에 맞춰 보조연료를 투입하지 못하
고 운전자가 임의로 보조연료량을 조
절하면서 질소산화물이 배출허용기
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.

출시설 설치변경신고'를 그대로 받아
주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는
지적을 받았다.
감사원은 전남도는 영암 슬러지 처
리시설이 17개 대기오염물질을 측정
하지 않는데 따른 지도·감독도 하지
않았고 여수시의 폐기물 건조시설에
대한 설치 미신고 및 대기오염물질
자가측정 미실시 여부도 지도·감독
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.



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
를 위한 광주·전남지역 대학 총장협의회 간담회가 16일 오후 광주시청 사회의실에서
강은태 시장 및 17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.

“호남·영남·충청 삼각 과학벨트가 최적이”

광주·전남대학총장협 호남권 유치 주장 지지

광주·전남지역대학교 총장단이 16
일 “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질
높은 연구기관이 집적되고 지리적으로
안정된 호남권에 유치돼야 하며 호
남·영남·충청의 내륙삼각벨트가 최
적안”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.

시청에서 강은태 광주시장과 간담회
를 갖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제
과학비즈니스벨트 호남권 유치 등에
관한 의견을 교환했다.
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“지역 대학
에서도 분산배치와 광주·전남지역
의 입지여건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
달라”고 당부했으며, 총장협의회는

이에 “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국제
과학비즈니스벨트는 내륙 삼각벨트
배치가 최선의 방법이다”는 성명서
를 채택, 호남권 유치 주장에 힘을
실었다.
지역대학총장들은 삼각벨트의 정
당성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과
학계 인사를 설득하는 데도 앞장서기
로 했다.

광주 내진설계 건축비율 22.1%

전국 두번째로 높아...전남은 19.7%

전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
설계를 반영한 건축물 비율이 광주는
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전남은 6
번째를 차지하는 등 광주·전남지역
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전국 전체
상황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조
사됐다.
민중당 장세환 의원(전북 전주 완산
읍)이 1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
받은 '전국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비
율'을 비교 분석한 결과, 우리나라 내진
설계 대상 건축물 총 1백1만152동 중
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16만4321
동으로 전체 대상 건축물 중 16.3%에
불과했다.

특히,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의
경우 건물의 내진 설계비율이 12.6%로
전국 16개 시·도 중 15위로 드러나 지
진피해에 대한 건축설계의 내진 비율을
높이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
나타났다.
이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, 전체
내진설계 대상 2만4397동 중 22.1%인
5385동이 내진설계를 반영했다. 이는
내진설계 비율 22.6%로(5만342동 중
1만381동) 1위를 차지한 경남에 이어
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.
전남의 내진설계 비율은 19.7%(2만
5111동 중 4939동)로 경남과 광주, 전
북과 울산(각각 21.2%), 충남(20.1%)
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.
이에 대해 장 의원은 “이번 일본 지진
사태를 거울삼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
인 지원대책을 세울 것”을 촉구했다.

“옛 도청별관 반드시 활용”

췌시장, 문화장관 획득받아

강은태 광주시장은 16일 “지난 15
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만
나 옛 전남도청 별관을 반드시 활용
하겠다고 약속을 받았다”고 말했다.
이에 따라 앞으로 레이저를 이용한
홀로그래프 같은 것을 별관에 비추는
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별관 활용
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.
강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
“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가
요구해왔던 ▲별관과 별관을 잇는 구
조물 복원 ▲철거 24m 디자인 강화
▲별관 활용 등을 정부가 모두 공식
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담
건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”이라
고 덧붙였다.
강 시장은 또 “정 장관이 문화체육관
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의
아시아최초문화축제 개최, 문화콘텐츠
기술(CT)연구원의 광주 유치 등을
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”고 강
조했다.

“전남에 국립종축원 분원 설치”

도,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첫 토론회

전남도가 우량품종 가축 보호를
위해 청정지역인 전남 섬에 국립축
산과학원 산하 축산자원개발부(옛
국립종축원) 분원 설치를 요청하고
나섰다.
전남도는 16일 전남농업기술원에서
열린 ‘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방안
대토론회’에서 구제역 및 AI(조류인플
루엔자) 등 전염병을 휩쓸며 재앙으로
치달았던 가축전염병 과동을 계기로
‘동물복지’기준을 강화하고 ‘친환경축
산’개념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하

는 한편, 우량종축 보호를 위한 대책이
시급하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.
이날 토론회는 가축전염병으로
직·간접적 피해규모가 6조원에 달
할 것으로 추정되는데다, 잔인한 매
물처분 방식 등에 따른 환경 오염 문
제가 부각됨에 따라 가축질병의 체계
적 대응체계를 세우고 축산업 선진화
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
마련됐다.
인명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이날
‘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방안’이라

는 기초법제를 통해 “효율 중심의 축산
에서 탈피,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정
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하다”
면서 “이제는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이
고 가축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일
수 있는 ‘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정책’이
추진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
전남도는 이를 위해 ▲동물복지형
친환경축산기금 10조원 조성 ▲전남
섬에 국립종축장 분원 설치 ▲산지
도축 의무화 ▲항구적 가축방역시설
설치 ▲살처분 처리방식 개선 ▲종자
생산시설 확충 ▲배합사료 공장 분산
설치 ▲동물복지 관련 법령 통합 체

계화 등을 선정하고 이를 정부에 건
의하기로 했다.
전남도는 특히 천혜의 자연 경관을
갖춘데다, 육지와 떨어져 있다는 지
리적 이점을 감안해 국가가 운영하는
국내 유일의 종축자원 보전기관인 축
산자원개발부 분원을 전남 섬에 건립
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 종축은 우수
한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하여 기르는
우량 품종의 가축으로, 축산자원개발
부는 젓소와 돼지, 닭, 오리, 말 등의
종축자원을 보유하고 있다.
박준영 전남지사는 “구제역 청정
지역인 전남에 종축장 분원을 설치해
야 한다”면서 “전남이 주목받는 동물
복지형 녹색축산 선도를 친환경경
축산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
록 총력을 기울이겠다”고 밝혔다.

신재생에너지 12개 업체
광주와 1083억 투자협약

광주시는 16일 오전 서구 상무지구
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신재생에너
지 관련 (주)이플러스텍 등 12개 기
업과 1083억원 규모의 투자유치협약
을 체결했다.
시는 이날 협약식에 앞서 한국스마
트그리드협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
해 관련 산업 육성 협력과 인력양성
등 정부의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지
정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
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12개 기업
은 광주시가 올해부터 맞춤형 투자유
치활동을 통해 발굴한 투자유치기업
으로, 이들 기업들은 728명을 고용할
것으로 전망된다.
광주시 관계자는 “민선 5기 이후 85
개 국내의 기업과 1조5532억원의 투
자협약 체결을 통한 실무자 단계로 진
행되고 있다”며 “광주가 지난 잠점을
모아 유리한 기업에 최대한 지원하겠
다”고 말했다.

여수박람회 특산물사업 참여자 모집

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
회가 박람회 특산물사업 참여자를
모집한다. 조직위원회는 16일 농·
수·축·광산물, 가공품, 공예품 등
및 광역시의 추천과 조직위 심사
를 대상으로 '2012여수세계박람회
인정특산물'사업자를 이달 말까지
모집한다고 밝혔다.
남해안 선벨트(전남·부산·경
남)지역 및 인근 광주·울산·제주
지역에 소재한 특산물 제조업체
가 대상으로, 박람회 인정특산물
으로 선정되면 '2012여수세계박
람회 인정특산물'이라는 엠블럼

및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역의
우수한 특산품을 제조·판매 할
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.
조직위는 해당 시·군·구청과 도
도 광역시의 추천과 조직위 심사
를 2011년 5월까지 40여개 업체를
인정특산물 사업자로 최종 지정·
승인할 계획이다.
조직위 관계자는 “인정특산물
의 전국 상품화를 통해 지역경제
및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
것”이라고 말했다.

Advertisement for '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' by Daeneung Education. It features a large title, a '2009 Best Seller' award, and lists various book series like '한자능력검정시험' and '한자능력검정' with their respective prices and features.

대표전화 : (02)2634-2007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
대능교육 www.daeneungedu.com